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교육활동을 함께하는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올바른 장애 표현에 대한 장애인권교육 자료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장애는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천중학교 교육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올바른 장애 표현



친구야 뭐 보고 있어?

응~요즘 내가 재밌게 보는 유튜브 채널이야. 요리하는 모습인데 재미있어. 같이 볼래?

와~ 정말 요리를 잘하신다! 댓글창도 구경해볼까?



꿈꾸는 요리사
구독자 XXXX명

[구독자1]
장애를 앓고 있지만 밝은 모습이 보기 좋네요. 응원해요.

[구독자2]
정상인보다 훨씬 요리를 잘 하시네요. 멋져요.



아~ 이분은 장애가 있구나.

응 맞아. 그런데 댓글에 잘못된 표현이 있네.



여기를 봐봐.

[구독자1]
장애를 앓고 있지만 밝은 모습이 보기 좋네요. 응원해요.

[구독자2]
정상인보다 훨씬 요리를 잘 하시네요. 멋져요.



장애를 앓다(X) → 장애를 갖다.(O)
장애가 있다.(O)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앓다'는 '병에 걸려 고통을 겪다.'로 정의하고 있어. '병'은 치료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장애는 달라. '장애'는 치료를 해도 더 나아지지 않는 고착된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장애를 앓다'가 아니라 '장애가 있다' 또는 '장애를 갖다'로 표현해야 해.



그리고 장애를 가진 것이 비정상은 아니니까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이 되는 거지.

정상인(X) → 비장애인(O)

정말 그렇네. 댓글을 달아서 올바른 표현을 알려줘야겠어.



올바른 장애 표현

장애자(X)	장애인(O)
정상인(X)	비장애인(O)
장애를 앓다(X)	장애를 갖다.(O)
	장애가 있다.(O)

글/그림: 강윤민 (서울수명초등학교 교사)

